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

임 원택
(전남대학교 교수)

I. 들어가는 말

428년 혹은 429년에 아우구스티누스(St. Augustine, 354-430)는 그가 이전에 펠라기우스파(Pelagians)에 대항해 은혜와 예정에 관해 쓴 글 때문에 마르세이유(Marseilles)의 수사들 가운데 혼란이 있다고 알려온 프로스퍼(Prosp- per)와 헐라리우스(Hilary)에 대한 응답으로서『성도의 예정에 관해서』(On the Predestination of the Saints)와『건인(堅堅)의 은사에 관해서』(On the Gift of Perseverance)라는 두 논문을 썼다. 프로스퍼가 “펠라기우스 이념의 남은 자들”(remainders of the Pelagian heresy)이라 부른 이 마르세이유인

들을 요즘에는 대부분 “반(半)펠라기우스파” (Semi-Pelagians)라고 부른다. 2


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자신도 주교직을 갖기 전에 “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며,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물들을 얻어 … 이 세상에서 바르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”라고 생각해서 반펠라기우스파의 것과 비슷한 잘못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한다 (『예정』 III, 7). 그는 자신의 과거 잘못이 예정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한다.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“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”[롬 9:13; 말 1:2-3 참조]라는 구절을 설명하면서,

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에게 주실 무엇을 예지하심으로 어떤 이의 행위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예지하신 바로 그 사람을 자신이 택하실 것을 예지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택하시어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선생을 행함으로 영생 또한 얻도록 하셨다 (『예정』 III, 7).

---